

본문: 요한복음 1 장 1-8 절

제목: 생명의 빛이며 로고스이신 예수

1.

구약성경 시대에 야웨 신앙을 바탕으로 한 히브리인들의 신앙은 이집트,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종교들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따르는 믿음과 신앙은 그리스 종교와 철학, 로마 종교와 황제 숭배의 컨텍스트 가운데서도 힘 있게 퍼져가죠. 그리고 그 신앙은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고 유효합니다.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집트, 바빌로니아, 그리스, 로마 종교와 기독교는 어떤 차이가 있길래 아직까지 살아 남았는가?' 왜냐하면 앞선 고대 여러 국가들의 신들과 종교는 이미 박제화 되어 버려 아무도 그 신앙을 따르는 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증인과 제자도에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에 설교드렸던 것처럼 기독교는 소속의 변화를 구원의 핵심 내용으로 여깁니다. 다른 종교들과 달리 사람을 이용하거나 착취하지 않고 사람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달리 기독교의 신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희생시켜 사람을 섬기는 높은 가치의 삶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에 감동한 이들이 자발적인 순종과 따름을 통해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전파되어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순종과 제자도를 바탕으로 한 증인들의 삶 때문에 기독교는 아직까지 건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이 없고 제자 또는 제자도가 없는 종교는 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1 세기 초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지만 3 일만에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한 예수를 직접 만져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생명을 바쳐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다른 이에게 전파해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던 증인들 때문에 예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와 인격을 말과 글 그리고 공동체 문화로 탁본해서 남기고자 하는 노력의 선봉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A.D. 48 년에서 60 년 경에 저작된 그의 편지들을 통해 예수의 죽음이 갖는 구원의 효력을 다양한 이방선교 현장에서 체험하고 증언하는 기원후 최초의 기독교 문서들을 남겼습니다. 바울 서신들은 예수의 생애나 발자취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기 보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구약성경을 이용해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갖는 의미들을 해석하고 전파했습니다. 바울의 글들에는 예수님의 생애는 거의 묘사되지 않고, 대신 예수의 다윗 혈통 출생, 최후 만찬,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만 초점을 맞추어 그의 생애를 조명했습니다. 바울의 글에 감동을 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십자가 죽음 이전의 예수의 행적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무슨 생각으로,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자의식과 비전을 가지고 활동하다가 십자가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는지 알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궁금증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라는 복음서 장르가 등장하게 된 배경입니다. 바울 서신이 쓰여진 후 20-30년 후인 A.D. 70-90년 경에 복음서가 쓰여졌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갈릴리에서의 삶,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예수님의 삶을 서사적으로 그려낸 관점이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앞의 공관복음서 세 권과 약간 관점도 다르고 접근법도 다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와 비전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2.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예수의 삶을 조명했을까요? 먼저 요한복음의 주요 독자층이 누구였는지 알아야겠죠? 요한복음의 주요 독자층들은 그리스-로마적 영생관과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변증적 논리와 주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예수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 세계의 철학과 종교에 대한 강력한 반명제(anti-thesis)를 제시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이죠. 다수의 학자들은 요한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이방 신자들과 유대인들을 겨냥하여 변증적인 복음서를 쓴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요한복음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큰 틀을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은 구약성경과 그리스-로마의 철학과 종교입니다. 요한복음은 구약성경을 여러 군데에서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구약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구약 성경의 구원을 하나님이 현재 이 시대에 이루시는 영생공동체인 하나님 나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의 하나님 나라를 물리적 공간에서 실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밀하게 그리려고 요한복음은 노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여러 번 강조되어 언급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요한복음을 이해하기 위한 큰 틀은 그리스 철학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리스철학과 사상에 바탕을 둔 로마의 사상과 종교의 틀 안에 놓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상과 철학에 대한 간단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 철학의 핵심적인 주제는 '아르케(Arche)'입니다. 아르케는 '처음, 시작'이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 말입니다. 모든 사건과 사물의 시초와 시작이 아르케이기에 원리, 원인, 궁극자라는 말로 설명됐습니다. 중국으로 치면 도(dao 道)에 해당하겠죠. 그리스 철학의 큰 전제는 초월적 신과 인간은 직접 교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을 중개하고 소통하게 하는 중개자가 있다고 이해했던 것이죠. 그 중개자가 누구이냐? "로고스(logos)"입니다. 그리스 철학에서 로고스가 구약성경의 지혜의 역할을 한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선재하는 지혜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실행했듯이 로고스는 신과 인간의 중개자로서 신의 의지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철학에 바탕을 둔 세계에 사는 이들에게 요한은 편지를 쓰면서 요한복음 1 장 1 절에서부터 구약성경과 그리스 철학의 두 큰 틀을 동시에 가져와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

요한복음 1 장 1 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원어 성경인 헬라어 성경에는 "En ἀρχῇ ἦν ὁ λόγος (En Arche en ho Logo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엔 아르케, in the beginning'이 맨 첫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In the beginning 으로 시작하는 구약성경이 무엇이죠? 창세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 장 1 절입니다. 창세기 1 장 1 절의 헬라어 성경도 En Arche 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케가 무엇입니까? 헬라 철학에서 던지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르케라 말씀드렸죠. 그들은 물, 불, 원자, 정신 등을 '태초 궁극자'라는 뜻의 아르케라 불렀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궁극자인 아르케에서 2 차적 파생존재들이 나온다고 보았죠. 플라톤 같은 경우 이 세상은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우리가 눈으로 보는 현실 이면에 궁극자로서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하며 아르케를 설명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아르케를 '제 1 원인'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맨 처음부터 아르케를 언급하며, "아르케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세상의 시작에 로고스가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무엇이냐 했습니까? 신과 인간의 중개자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고 요한복음

1 장 1 절은 선포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익숙했던 이 책의 독자들은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근본 원인이시자 궁극자이신 아르케이구나. 아직 예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가 로고스이구나. 예수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개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구나. 그런데 그 로고스인 예수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가 아르케이구나. 요한복음 1 장 1 절을 읽는 당시 사람들은 명쾌하게 그 사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 장 1 절은 창세기 1 장을 불러오고 있고 창세기 1 장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 장에서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던 '창조명령 대리수행자'로서 로고스인 예수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 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 장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이는 말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Hebrew- ba yomer Elohim)"입니다. "이르시되"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의 발설(oral utterance)입니다. 하나님이 발설하면 그 발설이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한 것처럼 창세기는 묘사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말씀을 수행하는 '창조명령 대리수행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면 '있어 왔다.'라는 미완료형태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요한복음 1 장 1 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단순 과거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법상으로 '있다(Eimi)'라는 동사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상태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왔다. 그리고 그 로고스인 예수는 창조명령 대리수행자로서 하나님의 발설이 이뤄지도록 하신 분이라는 거죠.

고대에 왕이 말을 하면 그것이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을 현실사건으로 만드는 것은 왕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 장에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울지어다." 말을 하니 두라 평지에 금신상이 세워집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는 말을 하자 그렇게 됩니다. 왕의 말이 곧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연세계를 막 움직이게 하여 금신상이 생기고, 사람들이 호적하러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의 말을 수행하는 중간 수행자들의 순종이 누적되어 왕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금신상을 세우라는 왕의 말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파발마를 타고 그 왕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겠죠. 전달 받은 관리가 사람들을 동원하여 금을 녹이고 틀에 부어 만들었을

겁니다. 중간 수행자들의 순종이 누적되어 그 말이 현실이 된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 장에서는 예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명령수행 대행자로서 그 말씀이 이뤄지도록 순종하심으로 이 세상이 창조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3-4 절).”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발설(utterance)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하신 결과 생명이 창조되고 창조된 생명들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대행하고 순종하는 대리자(agent)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자신의 사명과 정체성을 자주 언급하곤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 장 34 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 장 30 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수행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을 때 숨을 거두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신 것이죠. 원래 자신이 왔던 장소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빛이 비취졌고 생명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의 예언자인 이사야는 벌써부터 예언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5 장 10-11 절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돌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입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발설된 말이 독립된 행위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이 그분의 명령을 다 순종하고 수행하여 이룬 후에 자신의 원발설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예언의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대학생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받고

무슨 말씀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좋은 뜻이 비처럼 나에게 내려 열매 맺고 풍성하게 하려나 보다'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드리시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니다.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perfect fulfiller 로 계시다 가신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는 길만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창조의 원래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나간 인간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창조의 비전과 명령을 수행하시기 위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아직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있었던 어두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히브리들이 믿는 구약성경의 창조론과 우주론은 어둠과 혼돈으로부터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빛보다 먼저 있었던 시원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둠 위에 빛이 후발적으로 나와서 계속 어둠을 몰아내는 형국입니다. 이것은 어둠과 빛이 영원히 50 대 50 으로 나눠 갖는다는 이원론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나라, 빛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버지의 뜻에 100 프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빛이 되어 못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어두움이 빛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었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두움 위에 빛의 왕국, 생명의 왕국을 창조하셨다. 여전히 우리는 어둠이 빛의 왕국의 주위를 감싸는 형국에 놓여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도 될만큼 태평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빛을 방사하는 삶을 사신 것처럼 해야 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하여 빛을 만들고 그 빛으로 하나님의 작은 우주를 우리 삶 가운데 만들어야 한다." 이 믿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긴장 없이 살 수 있게 처음부터 완벽한 우주를 만드시지 않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심연이 지배하는 세상을 빛의 왕국으로 만드시는 일에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기 위해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억제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우리의 동역이 마치 필요한 것처럼 자신을 억제하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억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비우신 여백에 인간의 순종을 채워 넣길 원하신 것이죠. — π. 인간과 함께 빛이 지배하는 나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5.

모든 피조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순종을 보여주신 혜택을 모든 피조물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함을 통해 빛을 발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벚꽃나무는 그리스도의 순종의 복사품으로 봄마다 순종하여 꽃을 피웁니다. 과일 나무들마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태양은 빛을 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뜻을 이뤄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분의 뜻을 이뤄드림을 통해 빛의 잔치에 그리고 생명의 잔치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붙들려 하지 않습니다(5 절).** 빛을 붙들지 않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담을 비롯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순종이 쌓여 암흑 물질과 혼돈의 물결이 우리 현실 세계를 덮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 내어 던져진 존재들처럼 느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총과 창으로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대량으로 죽음으로 내모는 전쟁은 혼돈과 어둠을 대표하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폭력과 야만이 가장 강력한 힘처럼 느껴집니다. 맹수들이나 표현할 법한 야만적인 욕심과 욕망을 공공연히 드러내는데고도 부끄러워 하지 않습니다. 사법 정의는 무너지고, 힘과 권력이 없는 자들에게만 법의 잣대는 날카롭게 적용되는 듯 보입니다. 사람들은 돈만 사랑하고 돈을 전능한 신처럼 떠 받듭니다. 남을 중상모략하기를 즐기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를 할 줄 모릅니다. 남을 험담하는 것을 즐기며 절제할 줄 모르고 난폭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던져진 존재들과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둠과 혼돈의 현실 세계에 우리는 던져졌을까요? 우리가 이런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설교 전반부에 말씀드렸듯이 기독교가 아직까지 생명력 있는 종교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순종의 제자도에 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내려고 하는 순종하는 제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예수 신앙은 생명이 있는 신앙으로 남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로부터 생명의 원리를 배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빛이 비추는 곳에 생명이 넘쳐남을 봅니다. 예수의 삶이 빛나고 예수의 삶이 생명이 넘치는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예수의 삶 자체가 에너지였습니다. 빛은 에너지가 응축된 상태입니다. 예수의 힘과 생명력은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려는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해 부름 받은 예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참 빛이 아니지만, 참 빛 되신 예수를 증언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 삶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빛을 모아 에너지를 발하는 태양열처럼 우리가 있는 일상과 직장 안에서 순종을 쌓아 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빛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모든 곳이 빛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순종 때문에 예수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빛으로 나아오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그룹 나눔 주제>

로고스(말씀)이신 예수 안에 있는 순종의 힘으로 집적된 생명 에너지야말로 사람들이 살아갈 힘, 즉 빛을 비쳐준다는 것이 지난 설교의 고갱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을 집적시키는 삶을 통해 우리 또한 우리 일상 속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 왕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것은 무엇일지에 대해 고민해 보고 구체적으로 내가 순종해야 할 내용들을 소그룹원들과 나눠보도록 합니다.